

Seven signs – sermon 3

Title: “Your son will live”

Scripture: John 4:43-54

Date preached: June 26th 2022**Scripture: John 4:43-54**

43 Now after the two days He departed from there and went to Galilee. 44 For Jesus Himself testified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45 So when He came to Galilee, the Galileans received Him, having seen all the things He did in Jerusalem at the feast; for they also had gone to the feast. 46 So Jesus came again to Cana of Galilee where He had made the water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nobleman whose son was sick at Capernaum. 47 When he heard that Jesus had come out of Judea into Galilee, he went to Him and implored Him to come down and heal his son, for he was at the point of death. 48 Then Jesus said to him,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you will by no means believe.”

49 The nobleman said to Him,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50 Jesus said to him, “Go your way; your son lives.” So the man believed the word that Jesus spoke to him, and he went his way. 51 And as he was now going down, his servants met him and told *him*, saying, “Your son lives!”

52 Then he inquired of them the hour when he got better. And they said to him,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the fever left him.” 53 So the father knew that *it was* at the same hour in which Jesus said to him, “Your son lives.” And he himself believed, and his whole household. 54 This again *is* the second sign Jesus did when He had come out of Judea into Galilee.

43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 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44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직접 말씀하셨다. 45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 곳 사람들은 그분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것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46 예수님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다. 그 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47 그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48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희가 기적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49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50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네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51 그는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52 병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 그러자 종들은 어제 오후 1 시경에 열이 떨어졌다고 대답하였다. 53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네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54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Introduction

Last time we looked at the first miracle performed by the Lord Jesus. I spoke briefly about the apocryphal infancy gospel of Thomas. In that work you can read the story of the young Jesus giving life to clay birds. The same story is also recounted in the Quran. I'm sure you don't need me to tell you that this is pure myth or fable. The Jesus we read about in the infancy gospel does not sound like the Lord Jesus we read about in the bible. This is because it's a made up Jesus. The real Jesus never acted out of spite or malice. He never did things simply to show off, or to receive self acclaim

or praise. The signs, miracles and wonders were never tricks or stunts. They always had a purpose or point. They were designed to point people beyond themselves to the truth. They were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reality of who Jesus was. Therefore we can be confident that Jesus never made clay birds come to life. The first sign He performed took place at a wedding in Cana. Let us review what we said about this sign last time.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는 도마의 외경 유아기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품에서 당신은 흙새에게 생명을 주신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꾸란에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화나 우화라고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유아기 복음에서 읽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주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는 결코 원한이나 악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시하거나, 칭찬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 기적, 기사는 결코 속임수나 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목적이나 요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넘어 사람들이 진리를 가리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 공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흙 새를 살게 하지 않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첫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표시에 대해 말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Review

Jewish weddings were very grand and memorable occasions. When someone got married in a small or even medium sized town it would be a major opportunity to celebrate. We should remember that ancient people did not live in the world of convenience that we live in today. Life for most people was hard and monotonous. Long days of back breaking work in the fields. Hours spent preparing food, raising livestock and caring for infants. So a wedding was a real chance to kick back and enjoy an extended break from hard work. The wedding in Cana was no exception.

Cana in Jesus' day was a very small and insignificant place. It consisted of just a handful of families. So it is easy for us to imagine the great excitement they all felt when two of their young people were getting married. Mary, the mother of Jesus,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l been invited to this wedding. They were no doubt all having a very jolly time until disaster struck. The supply of wine had run out. It's hard for us today to imagine what a terrible thing this was. I suppose if we were having a party and had invited many important, or special people and we ran out of food or drink we would be deeply embarrassed. We would feel ashamed and imagine our guests looking down at us for failing to prepare properly. But we of course could quickly run to the local shop and get what was missing. In ancient Israel to run out was something people would never forgive or forget. It was something you might even be sued for. You would definitely carry the stigma of it for many years.

Mary draws Jesus attention to this problem. Why she did this, or even what she expected Jesus to do about it is a unknown. Certainly we can be sure that she did not anticipate a miracle. Jesus remember had never performed a miracle before. He was however the person Mary had relied upon and trusted since the probable death of her husband Joseph. She had faith that He would know what to do in this situation.

Jesus rebukes her mildly for bringing this matter to His attention. It is, He tells her not something that concerns Him. Most significantly He tells her that His time has not yet come.

Jesus remember was operating under the Father's schedule. He would not be pressured or pushed into doing things before the right time. He does however decide to intervene and resolve the matter.

He orders the servants to fill the six stone pots that contained the water used for ritual washing. When this is done He tells them to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feast. When the master tastes it he is amazed to discover that it is the most amazing wine. The bride and groom along with their guests have 6 pots of delicious wine to enjoy. This would have been plenty for the wedding feast. They would also have some left over to enjoy later, or maybe sell and profit from the sales.

It was an amazing sign. To instantly create wine from nothing but water. Human beings can make wine. It's not that difficult. Get some fruit, put it in water, add some sugar and yeast and wait. The natural laws that God has put in place mean that in due time we can have some nice tasty wine. When I was younger I tried to brew my own beer. I brought a kit and followed the instructions carefully. I had to mix the ingredients, add sugar and leave it in a warm place. Sadly the beer I brewed was not very tasty. It was drinkable, but only just. So with the proper ingredients and time we can make wine or beer.

This of course was not what Jesus did. He superseded the natural laws in an act of the supernatural. He made wine without the natural ingredients and more importantly without waiting for time and nature to take their course. This sign manifested or revealed Christ's glory and helped secure His disciples belief in Him.

Today we will consider Christ's second sign. The healing of an official or nobleman's son. Before we do let us pray.

유대인의 결혼식은 매우 웅장하고 기억에 남는 행사였습니다. 누군가가 중소 도시에서 결혼하면 축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편리한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고단하고 단조롭습니다. 들판에서 일을 하는 긴 날들. 음식을 준비하고 가축을 기르고 유아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힘든 일을 잠시 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나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소수의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젊은이가 결혼할 때 그들이 느꼈을 큰 흥분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칠 때까지 모두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의 공급이 바닥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가 파티를 하고 있고 많은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음식이나 음료가 떨어졌다면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손님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를 멸시하는 상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빨리 현지 상점으로 달려가서 누락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결코 용서하거나 잊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고소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수년 동안 그것의 낙인을 지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심지어 그녀가 이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그녀가 기적을 예상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남편 요셉의 죽음 이후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지 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그녀를 온화하게 꾸짖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녀에게 그분과 관련된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심장하게 그분은 그녀에게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

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정에 따라 운영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적절한 때가 되기 전에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종들에게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 담긴 여섯 개의 돌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을 마치자 그분은 그들에게 얼마를 가져다가 잔치 주인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가장 놀라운 포도주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과 함께 6가지의 맛있는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잔치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나중에 즐길 수 있는 일부를 남겼을 것입니다. 또는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징조였습니다. 물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이 즉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인간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일을 따서 물에 넣고 설탕과 이스트를 조금 넣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은 때가 되면 우리가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내 맥주를 양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키트를 가져 와서 지침을주의 깊게 따랐습니다. 나는 재료를 섞어서 설탕을 넣고 따뜻한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슬프게도 내가 양조한 맥주는 그다지 맛이 없었다. 마실 수 있지만 그냥. 따라서 적절한 재료와 시간만 있으면 와인이나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행위로 자연법칙을 대체했습니다. 그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더 중요하게는 시간과 자연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나타내었고 제자들이 그분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표적을 고려할 것입니다. 관료나 귀족의 아들을 치료하는 일. 그 전에 기도합시다.

Setting the scene

We turn today to look at Jesus' second sign. Let me begin by explaining when this event occurred in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Lord Jesus. John tells us that after the wedding in Cana Jesus went down to Capernaum. "Down" here refers to geography. Capernaum was on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and Cana was up in the hills. After spending a few days in Capernaum Jesus went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It is at this time that he drives out the money exchangers and those selling cattle in the temple. During this time He also performed many miraculous signs (John 2:23) but John doesn't tell us what they were. Whilst in Jerusalem the Pharisee Nicodemus comes to visit Him. Following this Jesus leaves Jerusalem and travels into the Judean countryside. It is whilst on this journey that He meets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Let us pick up the story now in verse 43 and 44.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기 위해 고개를 돌립니다. 이 사건이 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언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래"는 지리를 나타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기슭에 있었고 가나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며칠을 보낸 후 예수님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때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가축 파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기간 동안 그분은 또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요 2:23),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이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제 43절과 4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3 Now after the two days He departed from there and went to Galilee. 44 For Jesus Himself testified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After ministering to the Samaritans for two days Jesus returned to His home region of Galilee. Jesus of course was born in Bethlehem in Judea. However He grew up and lived most of His life in Nazareth in Galilee. Therefore He was always identified as a Galilean. So what does Jesus mean here when He says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There are a number of ways we might understand His words. On a surface level because the local people were so familiar with Jesus, and had seen Him grow up they did not honor and respect Him for who He truly was. We might imagine them saying, "how can he be the messiah, we saw him playing as a boy."

On a deeper level perhaps Jesus is referring to the people's desire only to see signs and miracles. They are unable, or unwilling to consider to look beyond the signs, to examine what the signs point to.

Therefore He is not properly honored as a prophet but only admired because He can do wonderful and inexplicable things. This of course ties in with the miracle He will later perform. Let us see what happens in Galilee.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을 섬기신 후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대부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갈릴리 사람으로 식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서는 존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어렸을 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언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 표지판 너머를 볼 수 없거나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로서 합당하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존경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분이 나중에 행하실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45 So when He came to Galilee, the Galileans received Him, having seen all the things He did in Jerusalem at the feast; for they also had gone to the feast.

This verse helps explain the lack of proper honor and respect that the people had for Jesus. They received him, or were interested in him only because His reputation preceded Him. They wanted to see Him heal sick people or perform other miracles. I think we can probably understand their thinking. We too are often drawn to the unusual, strange or out of the ordinary. Having a local person doing amazing things must have been quite a draw.

Today we live in a high tech media age. Because of the internet and cell phones news and information can spread very quickly. First century Palestine was very different. What Jesus had been doing in Jerusalem would normally have taken some time to reach the people in Galilee. However we are told here that people from the region had been in Jerusalem for the Passover and were eye witnesses of Jesus' miracles or signs. No doubt the news about Jesus had spread quickly and excited the people. We can picture them flocking around Him hoping to see Him perform a supernatural act. The important point to recognise here is the people's focus on the miracles. They are not interested in anything beyond the miracles. Let's read on.

이 구절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합당한 영예와 존경의 부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그를 영접했거나 그의 명성이 그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거나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

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마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것에 끌립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 현지인이 있다는 것은 꽤 무승부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덕분에 뉴스와 정보는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보통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의 목격 증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에 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초자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 그분 주위에 모여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들은 기적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46 So Jesus came again to Cana of Galilee where He had made the water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nobleman whose son was sick at Capernaum.

We know that Jesus made His Galilean base in Capernaum. Matthew in His gospel tells us that Capernaum was Jesus' own city (Matt 9:1). Capernaum was a prosperous and thriving town in Jesus day. It was home to a bustling fishing community, had a nice synagogue and was clearly a place in which Jesus and His disciples felt comfortable and safe.

John does not tell us why the Lord was again visiting Cana. Perhaps he was visiting friends, or maybe even seeing how the seed He had planted at the wedding was developing. It was whilst He was in Cana that the Lord is approached by a nobleman from Capernaum. The Greek word used to describe this man is the term *basilikos*. It describes a "royal official." Someone who served a king in some way. We are not sure which king he served. Quite possibly he served Herod Antipas the tetrarch of Galilee (4 BC – 39 AD). He was the son of Herod the great. We know him as the wicked man who had John the baptist beheaded. So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the nobleman served Herod Antipas. This means he was an important man. The reason he has travelled the 18 miles from Capernaum on the shores of lake Galilee is because of his sick son.

I have been very fortunate. I thank the Lord that my daughter has mostly enjoyed good health. I do remember however when she was quite young that she had to spend some time in hospital. For a parent there is nothing worse. Knowing that your child is sick, but being unable to help in any meaningful way. You feel angry, frustrated and deeply despondent. We can then imagine the desperation of this nobleman. He would have done anything, travelled any distance if it might have helped his son. Let's see what happens.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갈릴리 기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마태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도성이었다고 말합니다(마 9:1). 가버나움은 예수 시대에 번영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변화한 여촌이 있는 곳이었고 멋진 회당이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가나를 방문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친구를 방문하거나 결혼식에서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의 한 귀족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바실리코스(Basilikos)입니다. 그것은 "왕실 관리"를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왕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그가 어떤 왕을 섬겼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섬겼을 것입니다(BC 4 – AD 39).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족이 헤롯 안티파스를 섬겼을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18마일을 여행한 이유는 병든 아들

때문입니다. 나는 매우 운이 좋았다. 제 딸이 대부분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병원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모에게는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고, 좌절하고, 깊은 낙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귀족의 절망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했을 것이고 어떤 거리라도 여행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47 When he heard that Jesus had come out of Judea into Galilee, he went to Him and implored Him to come down and heal his son, for he was at the point of death.

Jesus has now begun His public ministry in earnest. His reputation as a teacher and more significantly as a healer of the sick had spread. People are now flocking to Jesus in the hopes that He will heal them.

This verse tells us something of this man's desperation and distress. His son was not merely sick but he was dying. We later learn that he has a fever, literally a "fiery heat." We know of course that many sicknesses result in feverish conditions. So we cannot say with any certainty what was wrong with the boy. However this is not important because John wants us to pick up this important detail. The boy was not suffering from something that would naturally pass or could be easily cured. We must assume that his father had done everything possible to save his child. Spent money to summon the best doctors. Tried all the best medicines or remedies available. It had all been to no avail.

However news has reached him about a man who could heal the sick. He had heard about the miracles Jesus had performed. Perhaps this man might help him. This was then his last hope. He approaches Jesus and implores Him to come to Capernaum and heal his son. It's interesting to think about the first two miracles John records the Lord Jesus performing. The first came after the request of a mother and the second after the request of a father.

We do not know what the nobleman really believed about Jesus. Most probably he had heard that he was a teacher and more importantly a healer. There was a strongly held Jewish tradition that healing could come through the prayers of celebrated rabbis. What will Jesus do? Let's find out.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사로서의 명성과 병자를 치료하는 치료사로서의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사람의 절망과 괴로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아들은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가 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문자 그대로 "불열"입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질병이 열이 나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소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John은 우리가 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선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소년은 자연적으로 지나가거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최고의 의사를 불러 모으는 데 돈을 썼습니다. 가능한 모든 최고의 약이나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가 그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가버나움에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요한이 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두 가지 기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오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왔습니다. 우리는 그 귀족이 예수에 대해 진정으로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교사이자 더 중요하게

는 치료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치유는 유명한 랍비들의 기도를 통해 올 수 있다는 강력하게 유지되는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알아 보자.

48 Then Jesus said to him, “Unless you *people* see signs and wonders, you will by no means believe.”

On the surface what Jesus says here come across as being a rather harsh rebuke to a man who only wanted his son to live. However, Jesus was making a more general statement that applied to most of the people He encountered. Whether in Judea or Galilee the spiritual condition of people was the same. Unless they saw something with their own eyes they would not believe. They failed to look beyond the sign to what it pointed towards. The signs wowed and amazed them but didn't provoke them into asking the really important question. Who is it that can do these amazing things?

The same applies for many today. I have often heard people say things like, well if God really exists why doesn't He show us a sign that no one can dispute. For example why doesn't God make the clouds form the words “God is real.” Do you suppose that would convince people? After all, many in Jesus day saw Jesus doing amazing things that could not be explained. Was it enough to convince them? No, the truth is that many just do not want to believe. They do not really want a sign. They simply want an excuse not to believe. Lets see what happens next.

표면적으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 아들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에 대한 다소 가혹한 책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다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에서나 갈릴리에서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표지판 너머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표지판은 그들을 놀라게 하고 놀라게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자극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그는 우리에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표징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은 구름이 "하나님은 실재하신다"는 말을 형성하지 않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는가? 아니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표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믿지 않을 핑계를 원할 뿐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49 The nobleman said to Him,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50 Jesus said to him, “Go your way; your son lives.” So the man believed the word that Jesus spoke to him, and he went his way.

The nobleman is not put off from pleading with the Lord. He did not do what we might expect from an important man. He did not tell the Lord to come because he was a royal official. That's what we'd expect, him saying something like, “Don't you know who I am?”

Instead we see that his heart was solely focused on his dying son. He believes strongly that Jesus has some special healing power. However we should note that despite being right about Jesus' power he was in error on two issues. Firstly he seemed to think that Jesus had to be physically present to heal the child. Secondly he believed that if Jesus delayed and the boy died it would be beyond the power of Jesus to bring him back to life. As we shall see neither of these things are true.

Our Lord had great compassion on the nobleman. He did not however do what the man wanted. He

did not immediately set off down to Capernaum. He did something far better. He gave the man a promise. He told him to return to his home because his son lives.

Now, as we know from lived experience the promises made by human beings can be fickle. We cannot always trust the promises people make. This is especially true if have no previous history with this person. Who would accept the promise of a complete stranger? But this is not the case with the Lord Jesus. God cannot lie and His Word can be trusted completely. Jesus gave the man's faith a real test. Would he accept with faith Jesus' words, or would he continue to plead for Jesus to come. The nobleman shows great faith. He believes what Jesus has said and departs. Let's read on.

귀족은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주님께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 다. 그는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말했습니 다. 대신 우리는 그의 마음이 죽어가는 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그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치유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 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 다. 둘째, 그는 예수가 지체하고 그 소년이 죽으면 예수의 능력으로는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 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귀족에게 큰 공활을 베푸셨습니 다. 그러나 그는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즉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 다. 그는 훨씬 더 나은 일을 했습니 다. 그는 그 남자에게 약속을 주었다. 그는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 다. 이제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알듯이 인간이 한 약속은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 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을 항상 신뢰할 수는 없습니 다. 이 사람과의 이전 기록이 없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 다. 누가 완전히 낮은 사람의 약속을 수락하겠습니 까?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님의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 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진정한 시험을 주셨습니 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습니 까,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시기를 간구할 것입니 까? 귀족은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 다. 계속 읽어봅시다.

51 And as he was now going down, his servants met him and told *him*, saying, “Your son lives!” 52 Then he inquired of them the hour when he got better. And they said to him,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the fever left him.”

What a wonderful and joyous moment this would have been. Let us try to imagine the scene. The nobleman is travelling back down from the hill town of Cana when he sees some of his servants in the distance. What must have gone through his mind? Perhaps he thought they were bringing him the most terrible news. Instead they deliver the greatest news imaginable. His son is alive and well.

The nobleman instantly asks when the fever left him. The servants tell him it was at the seventh hour. There is some debate about whether John is using the Roman or Jewish time system. If it was Roman time then the “seventh hour” means 7 hours after midnight so 7am. If it is the Jewish time system it means seven hours after dawn so around 1pm. It seems more likely that it was 1pm.

John of course included this detail because the healing of the boy coincided with Jesus telling his father he lived. I also want you to note here the immediacy of the boys recovery. He didn't just begin to feel a bit better at 1pm. He was completely better. We know this because servants were dispatched to tell the nobleman there was no need to approach Jesus. If he had only slightly improved there may still be the need for a healing miracle. Let's read on and see how the nobleman responds to this news.

이 얼마나 훌륭하고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귀족은 가나라는 산간 마을에서 다시 내려오던 중 멀리서 그의 신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들이 그에게 가장 끔찍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뉴스를 전달합니다. 그의 아들은 잘 살아 있습니다. 귀족은 열병이 언제 떠났는지 즉시 묻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이 일곱 시였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로마 시간 체계를 사용하는지 유대 시간 체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로마 시간이었다면 "제 7 시"는 자정 이후 7시간을 의미하므로 오전 7시입니다. 유대 시간 체계라면 새벽 7시간 후인 오후 1시경을 의미합니다. 오후 1시쯤이었던 것 같다. 물론 요한은 이 세부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치유는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년들의 회복이 즉각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후 1시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귀족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인들이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간만 개선되었다면 여전히 치유의 기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읽어 봅시다.

53 So the father knew that *it was* at the same hour in which Jesus said to him, "Your son lives." And he himself believed, and his whole household.

We see here a progression in the nobleman's faith. He had begun with confident faith. He had confidence that if Jesus came to his house He had the power to heal his sick son. Upon hearing that his son recovered exactly when Jesus said he would we see a progression in his faith. It moves now to being a confirmed faith. His trust or faith in Jesus is confirmed. This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to this series is the purpose of the signs. They are designed to point the onlooker beyond the actual sign to the truth that lies beyond. The nobleman after witnessing this sign now truly believes that Jesus was indeed the Christ. The anointed one sent by God. His response to this was to share this news with his family. This should of course be all human beings response to the Lord Jesus Christ. If we know the truth about who Jesus Christ is, and what He has done how can we keep quiet? Why would we not want to share the good news at least with our family members.

So we see that the nobleman's faith went from confident to confirmed and finally into the contagious mode. He could not keep quiet about what God in His mercy had done for him. As we might expect the response was emphatic. The nobleman and his whole household believed in Jesus. Let us conclude the account with verse 54.

여기서 우리는 귀족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병든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아들이 정확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믿음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증된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예수에 대한 그의 신뢰 또는 믿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소개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표지판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실제 기호 너머에 있는 구경꾼이 너머에 있는 진실을 가리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징조를 본 귀족은 이제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부음받은 자.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이 소식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라도 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족의 믿음이 확신에서 확증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염 모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신 일에 대해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강력했습니다. 그 귀족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4 절로

기록을 마치겠습니다.

54 This again is the second sign Jesus did when He had come out of Judea into Galilee.

John calls this Jesus' second sign. This is interesting because John told us at the end of chapter two that Jesus performed many signs in Judea (John 2:23). It may be true that this was the second sign Jesus performed in Galilee, but it certainly wasn't the second sign in His public ministry. John then is being selective in his choice of signs. He is not telling us about all the things Jesus did but carefully choosing seven key signs that point us to the real identity of Jesus. Let us turn next to think about what we can learn from the second sign.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요한이 2 장의 끝에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요 2:23).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의 공생애에서 두 번째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표적을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일곱 가지 핵심 표징을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표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What does this sign teach us?

I have four comments to make.

1 God is sovereign

Once again, and as is true for all the signs this sign reminds us of God's power over all things. He is sovereign and in control of all. As human beings we are limited in so many ways. I am happy to say that God does not share our weaknesses or limitations.

다시 한 번, 모든 표적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 표적은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많은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를 공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 Nothing is too small or insignificant for God to care about.

It is, I suppose natural that we tend to focus on the big, the important and the newsworthy. The national elections capture the nation's mood far more than the local elections for example. This despite the fact that local politicians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at the community level. Jesus had around three years to prepare His followers to change the world. So when the nobleman approached it might have been seen as a distraction. If we were there helping Jesus what might we have said, "Please don't bother the master, He's got really important work to do." But not Jesus. God is concerned about all of His creation. The nobleman's son was not only important to the nobleman and his family. The boy was precious to God too. This should remind us that God cares about our small and unimportant issues. He is our loving heavenly Father and wants us to take all our cares and troubles to Him.

우리가 크고 중요하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총선은 지방 선거보다 훨씬 더 국가의 분위기를 포착합니다. 이것은 지역 정치인이 지역 사회 수준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약 3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접근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도왔다면 우리는 "주인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

든 피조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귀족과 그의 가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모든 염려와 문제를 그분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3 God is not bound by time or space

The first two signs demonstrate Christ's power over time and space. In turning water into wine Jesus showed that He was not bound to the regular processes of time. Grapes usually take time to ferment and turn into alcohol. But God has the power to transcend these natural laws. The second miracle shows Christ's mastery over space. God is not limited by space as we are. The nobleman as we said wrongly believed that Jesus had to be present to heal his son. This sign then was a long distance healing. It demonstrated that God's power is not minimised or limited by distance. Why is this so significant? Well at the present time Christ is not physically present with us. But this does not mean that His power or influence is in any way reduced.

처음 두 표적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시오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시간의 규칙적인 과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포도는 보통 발효되어 알코올로 변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공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 귀족은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잘못 믿었습니다. 이 표시는 원거리 치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리에 의해 최소화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현재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분의 권능이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The importance of faith

The nobleman demonstrates what true faith looks like. He did not beg or plead with Jesus to come with him. When Jesus said his son would live he believed it without question. We live 2000 years after our Lord and savior walked this earth. We have not yet seen Him with our eyes. Our whole believe is built upon faith. We trust God's revelation to us and God in His grace has given us the Holy Spirit. We are not to worry or feel fear. We are, just like the nobleman to have faith that God will say and do what He has promised.

귀족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가자고 간청하거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살겠다고 하셨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걸으신 지 2000 년 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귀족과 같습니다.

